

위원장 워크숍

- ❖ 일시: 2023. 11. 11(토)
- ❖ 장소: 갈릴리홀

찬양위원회



1. 이웃과 함께하는 앞마당음악회

❖ 현황

- 현재 “목요차나눔” 행사와 함께 앞마당음악회를 상/하반기 각 3회 정도를 실시 중
- 출연자는 우리 교회의 독창자, 악기연주자들로 구성
- 참석자들은 주변 직장인 및 주민들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휴식하면서 음악 감상
- 교회 주관 음악회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선곡에 유념 (주로 외국/한국 가곡 등 귀에 익은 음악 중심)

❖ 제안

- 강남구청에서 시행 중인 “강남행복콘서트” 프로그램을 활용
- 구청에서 선정한 다양한 공연팀이 앞마당음악회에서 공연하도록 협력 (사전 공연팀 선별)
 - ✓ 공연팀에 대한 출연료는 구청 부담
 - ✓ 가능하면 가페드림 내에서도 공연 모색 (우천시 등)
- 음악 장르에 너무 제한을 두는 것은 지양
 - ✓ 참석자들이 성도가 아니고 외부인들임을 감안 (교회로 유인하는 방편으로 활용)
- 중장기적으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교회 내 장소를 예술공연 장소로 대관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

2. 총현음악아카데미 참여 확대

❖ 현황

- 현재 우리 교회 성도 대상(타교회 성도 일부 참여)으로 운영 중
- 코로나 이후 참여도가 감소함
 - ✓ 강사: 약 16명
 - ✓ 수강생: 약 57명
 - ✓ 수강료: 30,000원/회(50분), 120,000원/월

❖ 제안

- 정기적인 모집 홍보(영상, 주간총현, SNS 등)를 통해 교회 성도들의 참여 확대
- 타 교회 운영중인 프로그램 조사하여 보완 모색
- 강남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참여 기회 제공 모색
 - ✓ 지역 내 불우아동들에게 수강 혜택 제공
 - ✓ 수강료는 구청에서 부담토록 하는 방안 검토

3. 주일 찬양예배전 찬양인도 개선

❖ 현황

- 찬양예배 15분전에 찬양대 지휘자들이 1개월 씩 순번을 정하여 담당 중 (7명 지휘자 담당 원칙)
- 현재 4명의 지휘자만 담당 (임마누엘, 할렐루야, 실로암 지휘자는 제외)
- 지휘자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갖고 있음 (성악 비전공자 경우)

❖ 제안

- 베엘찬양대원 중 찬양팀(3~4명 정도)을 구성하여 찬양 인도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
- 싱어팀으로만 구성하고 지금까지 오르간 반주로 찬송가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
- 필요시 타 찬양대 찬양팀 또는 차세대위 찬양팀들도 순서를 담당하는 것을 검토